

퀀틴전시 플랜

10월 물가. 에너지와 허리케인이 변수



[투자전략팀]

조재운 / Quant Strategist
jaeun.jo@daishin.com

이경민 / Strategist
kyoungmin.lee@daishin.com

경제 지표

10월 물가. 에너지와 허리케인이 변수

- 이번 주 13~14일 미국 CPI와 PPI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. 물가 안정세를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10월에는 에너지와 허리케인이라는 변수로 노이즈가 발생할 가능성 대두
- 최근 물가에서 핵심 요소를 차지한 내용은 에너지, 주거비, 식품으로 에너지 가격이 하반기 들어 하락하며 물가 안정세를 주도하고 있는 상황. 주거비와 식품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에너지가 끌어내린 가격을 상쇄하며 전체적인 물가는 안정세를 유지 중

에너지 가격, 최근 물가 안정의 주요 원인

- 에너지 가격은 최근 CPI와 PPI 안정에 큰 기여. 하반기 에너지 가격의 하락은 CPI 상승률을 억제하는 주요 요인이 되었으며, 9월에는 PPI에서도 에너지 가격이 2.7% 하락하면서 다른 부문의 가격 상승을 상쇄

주거비와 식품의 상승, 에너지로 인한 하락을 상쇄

- 주거비는 지속적으로 CPI를 끌어올리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 중. 8월과 9월의 주거비 상승은 소비자의 생활비 증가를 의미
- 식품 가격은 PPI에서 두드러진 증가를 보였으며, 특히 가공 가공류와 같은 특정 항목에서 큰 폭으로 증가. 생산자 수준에서의 비용 증가가 소비자 물가로 전이 중. 식품 가격 상승 역시 생활비 증가를 야기

10월 에너지 소매 가격은 하락 폭 축소, 허리케인은 예상 못한 변수 가능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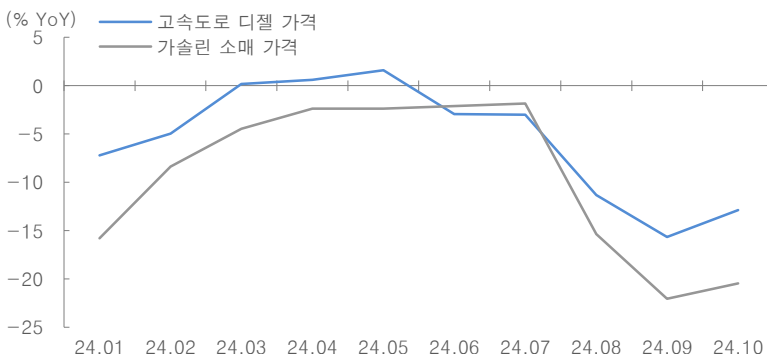
- 10월 물가는 에너지 가격과 허리케인이 변수가 될 가능성. 하반기 물가 안정의 주요 원인이었던 에너지 가격이 하락폭을 줄였으며 일각에서는 허리케인이 예상치 못한 섹터에서 복병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
- 10월 에너지 가격은 소매 가격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소폭 상승. 가솔린 가격은 8~9월에 각각 -4.6%, -3.2% 하락했으며 디젤 가격은 -3.1%~-2.2% 하락. 10월에는 가솔린과 디젤 가격이 각각 -2.5%, 0.8%로 가솔린은 하락폭을 줄였으며 디젤은 상승으로 전환
- 일각에서는 헬렌과 밀턴 허리케인 이후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수요 증가와 대피 명령에 따른 호텔 숙박이 서비스 가격의 상승 기여 가능성을 지적

요일	주제
월	이슈/변곡점 분석 및 전망
화	경제지표/이슈 점검
수	증시 성과 요인 분석
목	실적 컨센서스 점검
금	밸류에이션 점검, 주간 전망

퀀틴전시 플랜 자료는?

퀀틴전시 플랜 자료는 대신증권 리서치 소속 **퀀트, 전략, 시장** 애널리스트의 현재 시장에 대한 고민과 생각을 담아낸 자료입니다. 매일 이슈에 대한 분석과 시장 리뷰, 확인해야 할 데이터들을 제공할 예정입니다.

에너지 가격 하락폭 축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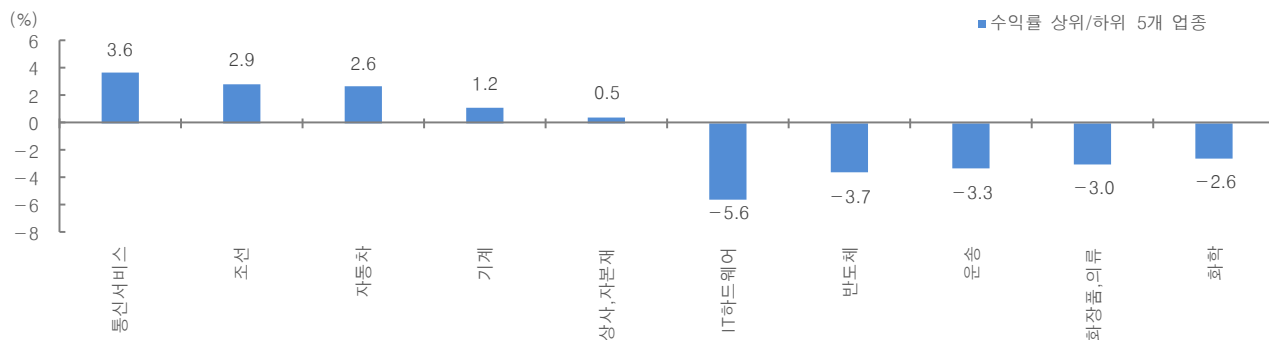


자료: EIA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업종 수익률 및 특징주

- 트럼프 트레이드 지속되면서 신규수주 발생한 조선업 및 우주산업의 상업화에 대한 기대감 적용되는 방산업종 강세
- 중국 전인대 상무위 폐막 이후, 내수부양책에 대한 실망감 발생하며 섬유·의복, 화장품 관련 업종 약세
- 이차전지 업종 다수 하락하는 추세 보이는 가운데, 스페이스X향 배터리 공급 소식 전해진 LG에너지솔루션 예외적 상승

수익률 상위/하위 5개 업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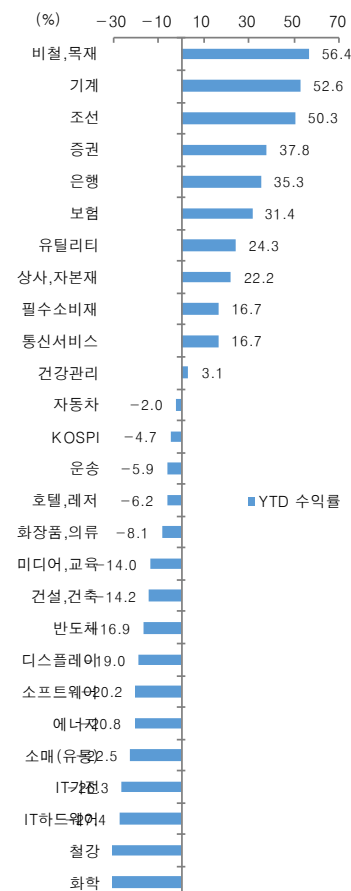


자료: FnGuide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KOSPI, 업종별 수익률 추이

주요 지수	현재가 (p)	동락율(%)						
		1D	1W	1M	3M	6M	12M	YTD
KOSPI	2,532	-1.2	-2.2	-2.5	-2.2	-7.2	5.1	-4.7
에너지	3,291	-1.4	-7.4	-9.0	-7.0	-8.7	-11.5	-20.8
화학	4,243	-2.6	-10.0	-16.3	-5.0	-26.6	-31.0	-37.2
비철, 목재	6,136	-1.8	1.4	23.0	61.2	45.9	60.7	56.4
철강	2,158	-2.5	-8.3	-13.4	-2.9	-21.4	-28.3	-35.3
건설, 건축	1,077	-1.6	0.2	-6.4	-12.0	-11.8	-10.3	-14.2
기계	3,640	1.2	7.8	12.1	18.2	13.1	75.3	52.6
조선	3,927	2.9	16.8	13.7	3.8	30.5	71.5	50.3
상사, 자본재	1,648	0.5	4.8	3.7	8.7	9.8	33.2	22.2
운송	1,433	-3.3	-6.6	-2.2	2.2	-1.5	6.3	-5.9
자동차	8,685	2.6	-1.3	-6.3	-5.0	-10.5	14.8	-2.0
화장품, 의류	3,723	-3.0	-4.5	-5.6	1.7	-15.5	-6.4	-8.1
호텔, 레저	1,747	-2.3	-4.6	-2.7	8.0	-7.9	2.9	-6.2
미디어, 교육	566	-0.1	-0.5	6.9	10.0	-6.3	-10.0	-14.0
소매(유통)	1,567	-2.4	-6.6	-6.5	-4.4	-18.6	-24.1	-22.5
필수소비재	5,685	-0.3	1.5	6.9	3.1	13.6	15.6	16.7
건강관리	8,722	-1.5	-4.5	-7.8	0.7	7.9	20.0	3.1
은행	1,895	-0.6	1.7	0.5	7.0	10.0	46.5	35.3
증권	1,382	0.0	0.3	1.2	13.8	14.6	46.8	37.8
보험	7,504	-0.2	-0.5	2.3	3.7	7.7	33.6	31.4
소프트웨어	5,486	-1.3	-4.1	-2.8	1.7	-10.8	-9.3	-20.2
IT하드웨어	698	-5.6	-7.4	-15.1	-20.7	-28.5	-21.0	-27.4
반도체	8,263	-3.7	-4.6	-4.3	-17.4	-22.1	-8.0	-16.9
IT가전	1,973	-0.2	-8.3	-11.9	4.0	-17.8	-18.9	-26.3
디스플레이	631	-1.6	-4.3	-5.1	-7.5	-9.5	-21.4	-19.0
통신서비스	328	3.6	0.1	5.1	9.0	13.2	18.8	16.7
유틸리티	811	-0.3	-1.5	6.8	10.0	13.7	35.4	24.3

KOSPI, 업종별 YTD 수익률



주: Top 5, Bottom 5

자료: FnGuide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[Compliance Notice]

금융투자업규정 4-20 조 1 항 5 호 사목에 따라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으며,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.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본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. (담당자: 이경민, 조재운)

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.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Research Center 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 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.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.
